



Hello! I am Sister Moonkyung Park. I grew up in the Busan Diocese in South Korea and entered our community in 1998 in the United States. When I arrived at the Pittsburgh Airport in April 1998, Sister Marlene Mondalek said to me there, “Moonkyung, how mysterious our Lord’s providence is! It was exactly thirty years ago today that I left for Korea. Exactly in thirty years, God sent you from Korea to us in the U.S.!” In retrospect, her phrase, “God’s mysterious providence”, seems to encapsulate my journey as a Sister of Charity.

In 1997, I became acquainted with our sisters during my last semester at graduate school in New York City. Sister Mary Clark, my Vocation Director, was instrumental in my exposure to the U.S. sisters and to Korean sisters who we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Upon completing my graduate studies, I returned to Korea and decided to enter the religious life. My family opposed it adamantly except my father who was ironically the only non-Catholic in my family. His unexpected thoughtful support enabled me to purchase an airplane ticket to the U.S. for my entrance. In 2023, I celebrated my silver jubilee at our Mother House. I became emotional because it was the moment for me to acknowledge in public that, for the last 25 years, God has saved me both spiritually and physically.



I often compare my entrance to religious life to the Apostle Paul’s conversion. I hardly knew who Jesus Christ was. My soul was unprotected from spiritual vices like pride, rivalry, and ambition. I knew nothing about Christian life, let alone religious life. Upon my entrance, God began to work in me both spiritually and physically, emptying me of those spiritual vices as well as physical ones. Providentially, God has arranged many sisters from both provinces to intervene in my journey

for my spiritual and physical healing. I had two life-threatening diagnoses. Miraculously I was healed with the help of many sisters from both provinces. I shed many tears of frustration, joy, and gratitude. Now I am living a much healthier life than before! What can be more perfect than God’s providential care for us?



I feel privileged when I listen to the stories of many patients



as a hospital chaplain. However, I had the most rewarding and life-giving ministry experience when I worked as a 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 Supervisor in Korea from 2009 to 2014. The ministry led me to make the best use of all the gifts God has given me not only for the CPE community but also for the Church. We in the CPE community witnessed together how the Holy Spirit can move the whole group when we are courageously open to her

guidance. I am still open to the unknown path on which the Holy Spirit will guide us living in the era of spiritual poverty. I believe in God’s providential care for us.



안녕하세요! 저는 박문경 수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부산교구에서 성장하였고, 1998년 미국에서 입회를 하였습니다. 제가 입회를 위해 1998년 4월 피츠버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말린 수녀님께서 제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경, 하느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30년 전 오늘 저는 선교자로서 한국으로 출발했는데, 정확히 30년이 지난 오늘 주님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주셨으니 말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말린 수녀님의 이 말씀,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 라는 표현이 저의 그간의 수도 여정을 집약적으로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사랑의씨튼수녀회 수녀님들과의 인연은 제가 뉴욕에 있는 대학원 유학 시절 마지막 학기였던 199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성소담당 수녀님이셨던 메리 클라크 수녀님을 통해 저는 미국수녀님들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을 방문중이셨던 여러 한국 수녀님들을 만났습니다.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수녀원에 입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우리 가족 중 유일하게 가톨릭신자가 아니셨던 아버지께서 저를 조용히 응원해 주셨고 그 덕분에 저는 입회를 위한 미국행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저는 모원에서 은경축미사를 했습니다. 울컥해 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제게 지난 25년간 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수도회 입회 사건을 종종 사도바오로의 개종 사건에 견주어 보고는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 영혼은 자존심, 경쟁, 야망과 같은 영적 악덕들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입회와 더불어 주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낫우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의 영적 육적 치유를 위해 양쪽 관구로부터 많은 수녀님들이 저를 돕도록 해 주셨습니다. 두 차례 아주 큰 병치레를 해냈지만 양쪽 관구 수녀님들의 도움 속에 기적으로 회복이 되어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 가득한 섭리보다 완벽한 것이 이 세상에 또 있겠는지요?



저는 병원원목자로서 많은 환자분들의 삶의 애환을 경청하고 다닙니다. 그럴 적마다 저는 이 사도직이 저에게는 참으로 큰 특권임을 매순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보람되고 생동감 넘치는 사도직은 제가 한국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투신했던 임상사목교육 (CPE) 수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사도직 안에서는 제가 주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CPE 공동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CPE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들은 우리가 용감하게 자신들을 성령의 손길에 맡길 때 성령께서 어떻게 그 공동체를 움직이시는지 함께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병원원목자로서 많은 환자분들의 삶의 애환을 경청하고 다닙니다. 그럴 적마다 저는 이 사도직이 저에게는 참으로 큰 특권임을 매순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저는 지금도 성령께서 영적 빈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알려지지 않은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에 찬 놀라운 섭리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